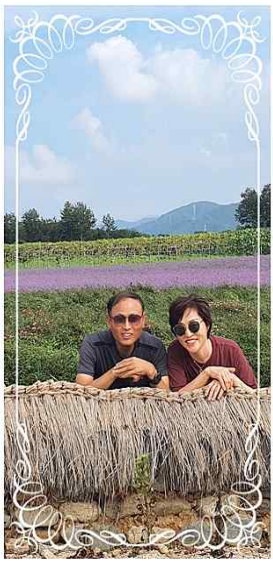
2020년도 표어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시 138:8)	NEW 순복음Life 제45호	발행일 : 2020. 1.12.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

“이영주사모님”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아멘

간증

만남의 축복

이영주 사모

"사람이 산다는 것은 만남의 연속이다"라는 말있듯이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 보니 만남의 연속이었습니다. 갓난아이가 부모를 만나고, 성장하면서 친구를 만나고, 사회로 진출하면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고 바뀌게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곤 합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만나서 살고 있으며, 누구를 만나면서 살아 온 삶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만남이란 참으로 신기하기도 하고 때론 위험하기도 하더라구요. 저는 오늘 이 글을 통해서 놀라운 만남 –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 에 대한 지난날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한 마디로 말한다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만남이죠.

저의 집안은 하나님을 모르며 살던 가정이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눈을 비비고 찾아도 없었습니다. 마치 황무지와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친구 따라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는데 매주 토요일과 주일이 되면 빠짐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었고 특히 토요일에는 산으로 기도하러 간다며 철야를 하는 거였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러겠지 생각했는데 동생의 열심은 올인하는 교회 출석이었던 것이었죠. 그런 동생을 보면서 우리 가족들은 신기하게만 느꼈습니다. 너무 열심있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뭐가 있긴 있나보다" 했고 그런 교회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생이 집을 비우는 것이나 공부하는 일에 소홀히 하는 것 같다고 판단하여 핍박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모습이 예전하고는 다르게 점점 변화되어 가고 기특하게 성장하는 모습에서 교회가 그리 나쁘지만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동생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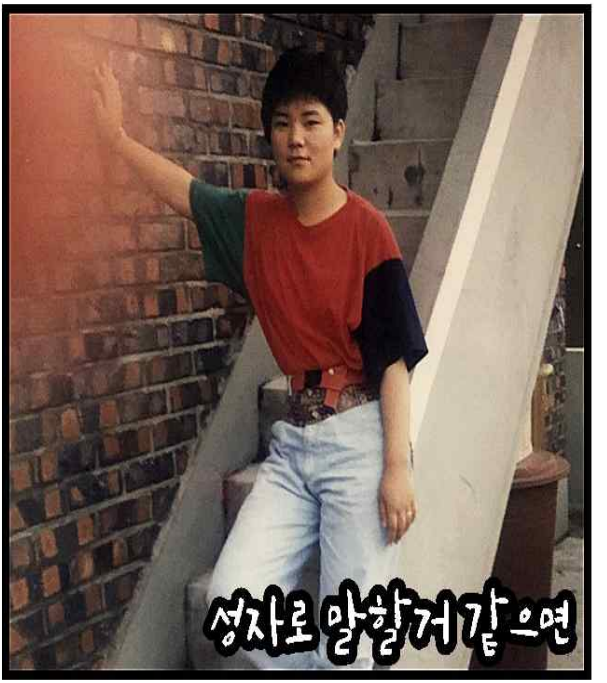
동생은 나를 볼 때마다 복음을 전하였는데 한 번은 “나도 20살이 되면 교회 갈께” 하는 것이었죠. 훗날에 깨달은 것이지만 그날의 생각은 나의 생각이 아니고 주님께서 저를 부르심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20살이 되면서 동생 따라 교회에 갔는데 한 번 쉼표를 찍었었습니다. 그런 저를 교회 청년들이 놓치지 않고 중보기도와 심방을 하면서 이끌어 주었는데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니던 제가 어느 날에는 열심하는 청년이 되어 있더라고요. ㅎㅎㅎ 나름 열심을 내면서 교회 생활도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청년회 일도 하나둘씩 맡아 하게 되었는데 이때 담임목사님의 사모님을 만나게 되었죠. 사모님을 보면서 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사모님은 너무 행복한 분이구나!” 라는 것이었고 그런 생각을 고정시키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저보고 사모가 되라는 것은 아닌데 사모님의 사랑과 하시는 사역 등등 모든 것이 좋게만 느껴졌고요. 그 사모님이 지금은 시누이가 되신 것이죠. 부족했던 저를 학습세례 받게 하고, 교사와 성가대를 하게 하시더니 급기야 교회행사를 할 때마다 준비하는 일에 부르시면서 남대문시장부터 어디든지 데리고 다니시는 것이었습니다. 훈련을 시키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모님과 함께 다니는 것이 마냥 좋기만 해서 사양하지 않고 단짝이 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런 세월을 약 2년 정도 보내면서 교회 생활이 익숙해질 때 지금의 나의 남편이신 목사님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군에서 전역하고 오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들으셨죠? 우리 동생이 자기를 신앙으로 지도 해 주신 선생님이라고 늘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긴 했었죠. 기도 대장, 말씀 대장, 능력 대장, 신앙으로 앞선 자라고 성도님들이 다 인정하시는 분이시라고 말하는 것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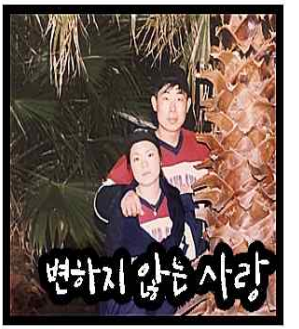
목사님은 군에 가시기 전에 학생회에서 교사를 했었고 청년회 활동도 했었는데 전역하고 나서 다시 예전의 사역들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주일학교와 청년회에서 일을 막 시작하게 되었는데 자연스럽게 목사님과 함께 교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목사님은 교회의 전반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어서 하루하루 상당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교회는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 등의 행사로 한참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고, 준비하기에 일손이 부족했던 목사님께서는 저를 도우미로 불러서 일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때 사역을 하면서 서로가 좋은 관심을 갖게 되었었고 이것이 성도님들 눈에는 가까운 사이로 비쳤던 것이었나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목사님께서 "서로 관심 있으면 집안에 인사하고 결혼을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께서 저에게 기도제안을 하시더라구요. 새벽에 나와서 작정기도 하고 사모가 될 준비가 되면 사귀어 보자는 것이었죠. 저는 워낙 사모님의 좋은 것만 기억하고 있어서 그런지 기도하는데 사모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구요. 뿐만 아니라 담대함도 생기고 감히 주님의 사역을 하고 싶다는 마음까지 갖게 된 것이지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 음성이고 응답인거였죠. 그래서 부모님께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동생을 통해서 이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저 또한 간간히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가족들이 너무 좋아했고 교제를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교제하게 되었는데 실상은 늘 청년회와 교사 사역 그리고 교회가 우선이었고 데이트는 단지 같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옆에 있었으니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었고, 교회를 돌아보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이고 데이트였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결국은 축복받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살림 이야기를 조금 한다면, 우리의 집은 늘 학생들과 청년들의 교제 장소였고 신앙상담의 터전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은 신앙이 성장하게 되었고, 교회의 든든한 일꾼들이 되어 갔고, 그 안에서 우리와 같은 커플들이 생겨나기도 했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들은 지금도 교회의 중직으로 열심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한 만남의 축복은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져가더라구요. 제가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목사님을 저의 남편으로 짝지어 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며 그러기에 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시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께요.
늘 기도로 지원해 주시고 인자하게 바라보며 따뜻한 손길을 주셨던 어머님이셨죠. 우리는 멀리 떠나 당진에 내려와 있어서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뵐 때마다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 어머님께서는 연세가 많으셨어도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문화가 있어서 그러신지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젊은 사람들 못지않은 밝고 바르셨으며 쿨하셨지요. 시댁 식구를 만난 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인격을 닮은 시댁 식구들과의 만남은 날마다 기대가 되었고 만남의 시간들이 결혼 전에는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설레임이었고 자랑이 되었답니다. 제가 결혼한 지 33년이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과 같이 여전히 사랑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거져 받은 것 거져 주라”는 하나님 말씀이 제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서 늘 다짐하며 노력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섬기려 하지만 돌아보면 늘 부족했고 아쉬움만 남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를 택하시고 부르시어 사모되게 하시고, 이곳 당진에 내려오게 하시고, 당진순복음교회에서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또한 만남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도 늘 존경의 대상으로 여기는 목사님을 만난 것이 축복인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믿음의 삶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저나 목사님은 대화를 할 때마다 우리교회 좋은 성도님을 만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더 잘하고 더 섬기며 살아가자고 이야기 합니다.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만남을 주시고 필요한 만남을 주시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내년에도 2020년 표어처럼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만남을 기대합니다. 아멘.


성자로 말할거 같으면

포스좔좔


변하지 않는 사랑

이시대의 잉꼬부부

인성자 집사

1. 집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신을 멋지게 소개해 주세요.

저는 너무 부족한 것 투성이라 소개하기가 민망합니다. 잘하는 것은 딱히 없지만 모든 사람과 잘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인성자 집사입니다 ^^

2. 우리교회에 오신 이유와 계기가 궁금해요.

당진건설에서 근무 할 당시 교회건축을 맡게 되어 한두 번 목사님을 뵈었고 교회 기초공사 한곳도 다녀왔지요. 결혼을 하고 교회를 정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목사님의 전화를 받았죠. 그리고 바로 당진순복음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쭉이요. 한마디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지요.

3.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다들 바쁘신데 저는 그닥... 하루하루의 생활이 똑같은 거 같아요.
회사, 집, 교회

4. 집사님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최고인 것은 신앙의 가정이죠~~

5. 남편인 김형진 집사님은 집에서 잘해주세요? 살림, 그 외 여러 가지요.

네. 아주 잘해요. 빨래도 청소도... 다재다능해요^^ 인터넷으로 요리하는 거 보면서 가끔 식사준비도 하거든요. 처음하고 비교하면 지금은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

6. 집사님은 카리스마 넘치는 성격을 지니셨어요. 자신의 성격의 좋은 점을 말씀 해 주세요.

제 소개에서 카리스마 넘친다고 말씀드렸고 성도님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정작 저는 소심하고 내성적인 부분이 많아요. 약간의 다혈질도 있구요. ^^ 모난 부분 다듬어가며 둥글게 살려고 노력 중이구요~ 성격의 좋은 점이라면 쿨한 성격입니다. ^^

7. 집사님의 가정은 우리교회의 대표가정이에요. 그 행복의 비결을 말씀해 주세요.

행복의 미결이 따로 있나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서로 맞춰 가는 거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 해 주면서요. 가족이라 해도 너무 간섭하는 건 싫어하거든요. 누구든지..... 행복의 대표가정이라고 하기에 부끄럽네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 더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8. 슬하에 금쪽같은 두 자녀를 두고 계세요. 성장하면서 이성친구도 데려오고 하는데 원하시는 며느리감, 그리고 사위감을 말씀 해 주세요.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뭐 바라는거 있나요? 저희들끼리 잘 살면 되지 하고요' 그러면서 내심 바라는 것들이 많더라구요. ^^ 저희부부는 아이들 어릴적 약속이 있어요. 배우자에 대해서

1.믿음의 가정 2.술 담배 안하는 것 3. 모유수유 할 사람, 이중에서 1번 2번은 충족시켜야 겠지요.

9. 김형진 집사님과 부부생활을 이어오는 중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말씀해 주세요.

행복했던 순간은 많았지만 그중에 두 자녀 연훈 성령이가 태어난 때죠.

10. 남편의 좋은 점 세 개, 달라졌으면 하는 점 한 개 말씀해주세요.

좋은 점은 가정적인 남자, 맡은 일에 순종함으로 끝까지 마무리 잘 하는 남자, 살림 좀 하는 남자~~ 라는 것이구요.

달라졌으면 하는 점은 아주 가끔 삐치면 이야기를 안 할 때가 있는데 그건 좀 고쳤으면 해요.

11. 언젠가 집사님께서 독무할 때 참 은혜 받았던 생각이 나요. 집사님의 춤사위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소시 적에 춤 좀 추셨나요? ^^

저의 모습에 은혜 받았다니 감사합니다. 어디서 배운 적은 없구요. 그렇다고 소시적에 춤도.... 그런데 끼는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내성적이라 많은 사람 앞에서는 하라고 해도 못하면서 아주 친한 친구들 앞에서는 런웨이를 걷듯이 걸어보기도 하고 조카 데리고 음악 틀고 춤도 추곤 했던 기억이.....

12. 안수집사님과 러브스토리 살짝 공개 해 주세요.

당진건설 다닐 때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 데이트다운 데이트는 없었던 듯해요. 저는 친구들을 좋아해서 밖으로 다니고 김집사는 일 마치고 저에 자취방 앞에서 저를 마냥 기다렸죠.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잠깐이라도 얼굴 도장 찍고 가곤 했어요. 참 순진하고 착한 사람, 세상의 더러운 때가 묻지 않은 사람이라 좋았어요.

13. 힘든 일 겪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남은 생애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저보다 힘든 일 겪으신 분들도 많은데 어디다 명함을 내밀겠어요. 주님의 은혜로 힘든 모든 일 이겨낼 수 있었죠. 앞으로의 삶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살고 싶어요.

14. 두 자녀를 아주 반듯하게 잘 키우셨어요. 이제 막 부모가 된 후배 성도님들을 위해 자녀교육은 이런거 다 한 말씀 부탁드려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자녀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과 하기 싫어하는 것에는 아이들의 생각대로 할 수 있도록 믿고 지원 해 주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요. 또한 책임도 따른다는 것도 가르쳐주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구요. 성도님들도 아이들의 생각을 믿고 지원 해 주세요. 물론 기도는 필수구요~

15. 2020년 내년도 표어에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해 주신다' 하셨어요. 집사님 삶에 불완전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저의 삶에는 완전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불완전하지요. 신앙의 부족한 부분들이 충성함으로 주님 앞에 완전케 되길 소망합니다.

16.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집사님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세요?

믿음이 흔들릴 때 저는 가정을 많이 생각해요.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본이 되기 위해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17. 사르밧 여인이 아들하고 먹을 한끼를 엘리야에게 주었어요.
만약에 집사님께 한 사람만 먹을 분량이 있다면 가족 중 누구를 주셔서 살리실까요?

가족 중 한 명요? 자기 이름이 아니면 다들 좀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저는 연훈이가 될 것 같아요. 부모이다 보니 남편보다는 자식을 먼저 생각하게 되네요. 연훈이는 어려서부터 부모가 없으면 자기가 동생 성령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분명 동생과 나눠먹을 겁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동생을 사랑하니까요.

18. 집사님은 요즘 무엇을 기도하고 계세요? 2020년 반드시 이루고 싶은 소망은 무엇인가요?

주님 안에서 가족 모두 영육이 강건하여 맡은 사명 잘 감당하고요.
김집사 하는 일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연훈이 국가고시 준비 잘하여 자신이 기도하는 것처럼 수석으로 합격하길 원하고요~ 성령이도 맡겨진 사명과 회사생활 잘하여 주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19. 자식이 아무리 잘해도 결국 부부밖에 없대요.
안수집사님 이름으로 삼행시 부탁드려요.

김 : 김장은 묵으면 묵을수록 맛이 깊어지듯이
형 : 형형색색으로 조화롭게 하나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진 : 진한 맛과 감동을 주는 삶이 되길~~~
당진순복음교회 2020년 파이팅 !

아버지의 사랑은 시골집 아궁이의 불씨 같습니다. 숯불과 잿불 속에 가려져 있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쉽게 꺼지지 않고 오랫동안 뜨겁게 달궈줍니다.

벌써 30여 년도 지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때 강원도에서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왔을 때 갑자기 중대장으로부터 호출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면회를 오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베트남 전쟁 참전 때 부상으로 한쪽 다리가 불편하시지만 언제나 호탕하신 성품을 지니신 분이었습니다. 서둘러 새 전투복을 다림질하고 급한 마음에 한겨울인데 찬물로 몸을 닦고 위병소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그날은 눈까지 많이 내렸는데 아버지는 가릴 곳 없는 그곳 벌판에서 집에서 준비한

음식이 담겨있는 보자기를 안고 하얗게 퍼붓는 눈을 맞으며 서 계셨습니다. 저를 본 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순간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소대장님이 신경 써 주신 덕분에 그날 달콤한 외박이 허락되었습니다. 허름한 여관방에서 아버지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 밤 아버지는 저를 처음 성인으로 인정 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고생이 앞으로의 네 인생에 있어 꼭 필요한 과정임을 알고 힘들더라도 열심히 군 복무를 해야 한다"

언제나처럼 당당하게 말씀하시며 내 가슴에 따뜻한 이불을 덮어 주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이제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곁에 안 계시지만 아직도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리고 두 명의 자녀가 있는 아버지로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마치 시골집 아궁이의 불씨 같습니다. 숯불과 잿불 속에 가려져 있어 잘 보이지 않지만 쉽게 꺼지지 않고 오랫동안 뜨겁게 아궁이를 달궈줍니다. 그런데 그 불씨는 작게 보일지라도 언제라도 커다란 장작을 활활 태울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고 나서야 그 사랑의 뜨거움을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좀 더 일찍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기도

이종희 집사

지존자 되시고 전능자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에 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은혜로 성도의 가정을 돌보시고

지켜 주셨음에 감사, 또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셨다면

손짓하나 말 한 마디도 불가하였습니다.

지나간 모든 순간들이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셨습니다.

주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2019년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었으니

이제 독수리 날개 쳐 오르듯

2020년을 힘차게 도약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모습을 뒤 돌아 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 삶의 모습에 주님의 사랑은 진정 있었는지…

경건하고 거룩한 몸가짐으로 살고는 있었는지

주신 사명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씀과 같이 감당한다는 것이
그저 말 뿐인것은 아니었는지....
주님! 새털과도 같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주님의 일을 거스른 적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주님의 일을 하도록 허락하신 주님!
성도들 각자 재능과 개성에 맞게
저마다의 일을 맡겨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감사하며 순종하며 충성하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자로 잰 듯
기가 막히도록 멋지게 감당하게 하셔서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잘했다
칭찬 듣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 주님의 크신 은총을 사모하며
주의 전을 찾는 모든 자에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초등부 소식>

2019년을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풍성해져가는 다니엘 유초등부의 소식입니다!

첫째 주부터 4주간 성탄절 전야제를 준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신애 선생님께서 준비해주신 '성탄절의 주인' 이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성탄절의 주인이 선물이나 영화가 아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라는 내용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때로는 선물을 받는 날, 쉬는 날이나 문화생활을 즐기는 날로 인식 되어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김은희 선생님께서 지도해주신 컵타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호응에 놀랐었는데요. 준비과정에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집에서 열심히 연습해 온 결과 서로 누가 빨리하나 경쟁을 할 정도로 능숙하게 해냈습니다. 여러 명의 아이들이 컵을 사용해 한 소리를 낸다는 것이 듣기에도 보기에도 좋았지만 이 과정들 속에서 아이들이 협력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팡이 율동입니다. 이민애, 김성령 선생님께서 이끌어 갔는데요. 그냥 율동보다 지팡이를 들고 동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못하겠다는 친구도 있었고 어려워서 동작들조차 제대로 나오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께서 보셨다 시피 모자가 벗겨지는 귀여운 일이 있었지만 어려워서 찡그렸던 친구의 얼굴도 행복한 웃음으로 가득차서 주님을 찬양했고,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잘 조화를 이뤄서 율동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를 드리는 모습이 교사들에게도 기쁨이었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주에는 하반기 시상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상반기와 동일하게 아이들이 모은 달란트를 가지고 다이소에 가서 직접 물건을 사도록 했는데요! 매주 모은 달란트도 있지만, 교회를 얼마나 많이 왔는지에 대한 개근상, 매주 나가는 주보를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에 대한 주보상,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에 대한 다독상을 같이 시상했습니다.
개근상을 받은 친구들은 전슬예, 김지아, 강유빈, 유은하, 박재민, 전단아 , 강유진, 이산지, 김다희, 장예은 어린이입니다. 아쉽게도 한두번 빠진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모두 모두 칭찬합니다 ㅎㅎ
주보상을 받은 친구들은 김지아, 한원희, 박재민, 김다희, 장예은 어린이입니다. 아마 서기였던 김성령 선생님이 뿌듯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독상을 받은 친구들은 장예은, 박준희, 유영찬, 조아정, 황정우 어린이 순으로 새롭게 등록한 어린이, 1학년 어린이가 등수에 들면서 선생님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물론 명단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어린이들도 차등으로 달란트를 지급했습니다. 어린이들의 열정 어린 모습에 선생님들 또한 2020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 다니엘 유초등부의 새로운 모습들도 기대해주시고! 작년처럼 열렬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ㅎㅎ

편지

사랑하고 축복하는 졸업생들에게..
적게는 7살에서 많게는 27살이 될 때까지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학교생활 하느라고 고생 정말 많았어.
특히나, 우리 6학년 어린이들은 부족한 선생님 때문에 더 고생 많았고!! 처음 인사했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예배라니... 올 한해는 유독 시간이 빨리 간 것처럼 느껴지네. 내가 너희들 덕분에 행복해서 그랬나 봐. 선생님이 교사가 처음이라 많이 부족했을 텐데도 끝까지 말도 잘 들어주고 따라줘서 너무 고마워 ^^
혹시나 선생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던 적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사과할게 미안하다 얘들아. 그래도 너희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위해주려고 했으니까 나의 진심만큼만 알아주련 ^^ 너희가 첫 제자인 만큼 앞으로도 쭈욱 기억에 남고 마음 한구석에 있을 것 같아. 이젠 학생부로 올라가는데 누구보다도 더욱 신앙생활도 학교생활도 잘할 거라고 믿어!! 당연히 잘하고 있겠지만 다시한번 상기하고 가자는 의미에서 이젠 모든 졸업생들에게 몇 마디만 하고 글을 마칠게.

1. 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기.

너희들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말로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빛나고 이쁘고 소중한 존재들이야. 어떤 것을 가져서가 아닌 무엇을 해서가 아닌 너희 자체만으로도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란다.
더군다나 우린 모두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찾기만 하라고, 부르짖기만 하라고 하시잖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시고 축복해 주시겠데. 무엇을 달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기도로 간구만하라고 하시니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이 세상은 너나 할 것 없이 '어떤 배경이 있네',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분이네'이러면서 으스대면서 잘난 체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한낱 티끌에 불과한 부질없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속상해하지도 위축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 바로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어디에서든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어깨 당당히 펴고 자신감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데. 그러니까 항상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서 주위 사람들을 마음껏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되길 바랄게.

2..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효도하기.

왜 너희가 알다시피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 네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오래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 나왔지? 너희들의 부모님께 잘 하면 돼. 말은 쉬운데 참 말처럼 하기가 쉽지 않지? 나도 마찬가지야. 그걸 깨달은 지금은 더 잘 해드리고 싶어도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룸이, 하율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을 더 챙기게 되더라고.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하나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31년이란 세월을 살면서 느낀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것은 바로 부모님의 내리사랑이라는거야.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부모님의 내리사랑....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시절이라고 말하는 연애 시절에도 한 사람의 일방적인 사랑으로는 끝까지 유지될 수가 없어. 일방적인 사랑으로는 끝내는 지치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효도하자 알았지??

3. 시간은 금이다.

이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 너희 학창시절에 하고 싶은 꿈을 확실히 정해서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어른들께서 왜 말씀하시잖아.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그 말씀을 왜 학창시절에는 깨닫지 못했을까 싶어. 너희들은 늦지 않았으니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꿈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것을 경험해서 꼭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한번 상상해봐. 나중에 꿈을 이뤄서 전 세계를 무대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너희들을.. 나는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너희들의 그렇게 될 모습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라 벌써부터 내가 다 뿌듯하네 ^^

쓰다 보니 의도치 않게 또 잔소리를 하게 됐네.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고 또 고마워. 항상 너희들을 위해 응원하며 기도할게!! 모두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해!!

- 2020년 우리 당진순복음교회 명품 그리스도인으로써 한 단계 더 성장하길 소망하며
교사 민이삭 드림 -

DJFGCC 2019 ver.

Merry christmas

준비물: 물개박수, 떠나가라함성

Merry Christmas

저희만 믿고 따라오셔

성탄절축하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네 간구를
미루시리라
성탄절축하제
Merry Christmas

#훈훈한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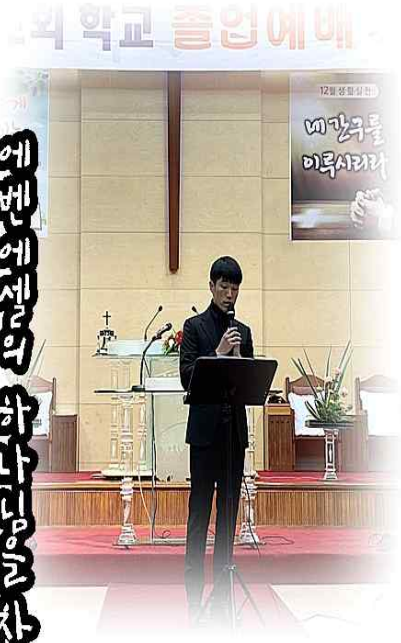
#훈훈한성탄절

Merry Christmas

뿌듯합니다

당진순복음교회
#인싸되기

2019 졸업예배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시시때때로 도우신 은혜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갖가지 어려움과 역경속에서도

교회 학교 졸업예배
2019년 교회표어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1. 복음의 삶을 살자
2. 넘치게 은혜받자
3. 건강한 질문되자
4. 최선을 다하자
12월 생활실천
비강구를
미루시려라

2019년 교회표어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비강구를
미루시려라

교회 학교 졸업예배

성경숨은그림찾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
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창세기 21장 5-6절)
[숨은그림 : 부엌칼, 팽이, 입술, 사과, 삼각자]

* 진화론은 허구 - essay.109 -

* 이 세상에 우연히 만들어진 물건이 없는 것처럼
우연히 만들어진 생명은 단 하나도 없다.
진화론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이 통심이고 싶은
인본주의의 독선과 오만과 교만이 빚어낸 허구일 뿐이다!

<유머>

화장실에서 느끼는 감정들

* 죄송함 : 아주 진한 향기를 남기고 나올 때
* 기 쁨 : 화장실에 유용한 신문지가 있을 때
* 답답함 : 좁은 곳에서 마지막 뒤처리를 해야 할 때
* 상쾌감 : 예상보다 많은 양의 물건을 처리 할 때
* 배신감 : 늦게 온 옆 손님(?)이 나보다 먼저 들어 갈때
* 불쾌감 : 옆 칸 사람의 볼일 보는 소리가 너무 요란하게 귓전을 파고 들때
* 섭섭함 : 나보다 늦게 들어온 옆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나갈 때
* 당혹감 : 이미 큰 볼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휴지가 없음을 깨달았을 때
* 불안감 : 볼일 끝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밖에서 사람이 기다릴때
* 미안함 : 모든 힘을 들여 힘 조절을 했건만 요란한 소리를 내며 쏟아져 내릴 때
* 당 황 : 갈 길은 바쁜데 화장실 안에는 줄 선 사람들로 가득할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 고 통 : 둘만 있는 엘리베이터 에서 다른 사람이 지독 한 방귀를 터뜨렸을 때
* 울 화 : 방귀 뀐 자가 마치 자기가 안 그런 척 딴전을 부릴 때
* 고 독 : 방귀 뀐 자가 내리고 그 자의 냄새를 홀로 느껴 야 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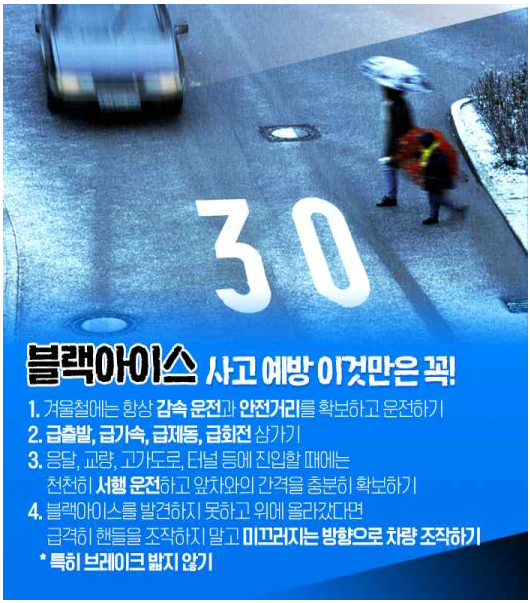
* 억　울 : 그 자의 냄새가 가시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올라타 얼굴을 찡그릴 때
* 울　분 : 엄마 손 잡고 올라탄 어린이가 나를 가리키며
　　'엄마 저 사람이 방귀 뀌었나봐 라고 할 때'
* 허　탈 : 그 엄마가 '누구나 다 방귀는 뀔 수 있는거야'
　　하며 아이에게 이해를 시킬 때
* 만감교차 : 말을 끝낸 엄마가 다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나를 보며
　　씨익 웃을 때

〈성냥개비 문제 〉

<이달에 issue>

블랙 아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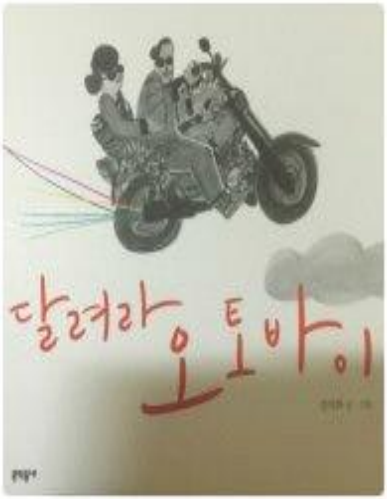
기온이 뚝 떨어지고 눈이 오기도 비가 오기도 하는 요즘 블랙 아이스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블랙 아이스(기온이 갑작스럽게 내려갈 경우, 도로 위에 녹았던 눈이 다시 얇은 빙판으로 얼어붙는 현상. 도로 결빙 현상을 일컬음)는 도로 주행 시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단순히 도로가 조금 젖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로 겨울철 아침 시간이나 터널 출입구, 다리 위의 도로에서 자주 발견된다. 눈이나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다리 위나 호숫가 주변의 도로, 또는 그늘이 져 있는 커브 길과 같이 기온의 차이가 큰 곳에서 블랙 아이스가 쉽게 생긴다. 특히 제설 작업을 위해 도로 위에 뿌린 염화칼슘이 눈과 결합하게 되면, 도로 위에 남아있던 수분이 도로 표면을 더욱 미끄럽게 하기 때문에 블랙 아이스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운전자들은 블랙 아이스가 자주 생기는 도로 등을 달릴 때에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운전하다가 블랙 아이스를 발견했을 때에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가능한 브레이크나 핸들을 조작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안전하다.

생각과 관점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달리 보며 때론 왜곡시켜 바라봅니다. 생각과 관점을 바꾸면 있는 그대로의 사물이 보입니다. 남극의 국경지대에 한 세관원이 고민에 빠졌는데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국경을 통과하는 할아버지 때



문이었습니다. 오토바이 뒤에 항상 주머니를 달고 다녀 세관원은 밀수꾼이 아닌가 수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몇 번이고 검문했지만 별다른 협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금속탐지기를 동원하여 검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자 할아버지에게 하소연하듯 물어보았습니다. “영감님, 절대로 체포하지 않을테니 솔직하게 말씀 해 주세요. 밀수하는게 있지요? 그게 대체 뭡니까?”

그러자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토바이라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은 정작 봐야 할 것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매직아이처럼 말이에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지만, 관점과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그 다음은 너무나 쉽게 잘 보이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 상황과 형편에 따라 본다 -아나이스 닌-

※ 생활 속 응급처치 방법

■ 코피가 났을 땐 고개를 뒤로 젖히면 된다?

코피가 나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은 코를 막고 고개를 뒤로 젖히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처치로 주의해야 합니다.

코피가 날 땐 가볍게 머리를 숙인 뒤 콧잔등의 말랑한 부분을 엄지와 검지를 사용해 5-10분 눌러 줍니다. 머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를 취할 경우 피가 기도를 막을 수 있고, 삼킨 경우 위장에 부담을 주거나 구토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10분이 지나도 코피가 멎지 않았다면, 솜이나 깨끗한 천으로 콧구멍을 막고 콧잔등에 얼음주머니를 대줍니다. 만약 휴지를 사용해서 콧구멍을 막을 시, 점막이 헐고 이로 인해 더 작은 자극에도 반복적으로 코피가 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급처치를 했는데도 코피가 30분 이상 멈추지 않을 땐 병원을 방문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칼에 베였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칼에 베였을 때 놀라서 반사적으로 상처에 입을 대고 피를 빠는 건 위험하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입속 세균이 상처에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지혈 할 때는 약솜보다는 멸균된 거즈를 대고 누릅니다. 솜을 상처에 댈 경우 미세한 섬유가 상처에 이물질로 남을 수가 있어 상처 치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비된 거즈가 없을 시 깨끗한 손수건으로 대체하고 상처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지혈을 목적으로 상처에 분말형 약제나 연고(후시딘과 마데카솔 포함), 또는 기타 물질들을 바르거나 뿌리 는 것은 상처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지혈이 되고 나면 흐르는 수돗물에(혹은 식염수) 씻어내 묻어 있는 흙이나 기타 오염물질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높임말 올바른 표현

1. 중복 높임은 가급적 종결 부분에서만.
   부장님은 급하시다며 나가셨습니다. 부장님은 급하다며 나가셨습니다.

2. 명령, 청유를 평서형으로 종결 금지.
   접수원: 3번 창구에서 기다리십니다. 접수원: 3번에서 기다리십시오.

3. 물건을 높이지 않음.
   이건 신상품이십니다. 이건 신상품입니다.

4. 사람의 행위를 높여야 바른 표현.
   주차비만 내면 되시겠습니다. 주차비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5. 압존법(상위 사람에게 차상위 사람을 낮춤)을 쓰지 않아도 바른 예절로 인정 (국립국어원 '표준언어예절').
   사장님, 김 부장은 출장 갔습니다. (압존법) 사장님, 김 부장님은 출장 가셨습니다. (허용)

6. 자신의 아들이라도 손자에게는 높임(가존법).
   얘야, 네 아버지 나간다. (바르지 않음) 얘야, 네 아버지 나가신다. (가존법)

7. '주십시오'(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행동).
   예배 중에는 휴대전화를 꺼 주십시오. (어색한 표현)
   ※ 말하는 사람의 전화를 꺼 달라는 표현이 됨. 예배 중에는 휴대전화를 끄십시오./꺼두십시오.

8. 상대의 소유도 높임(간접높임).
   선생님께는 딸이 있습니까? 선생님께는 따님이 있으십니까?

9. 말씀은 '계시다'가 아니라 '있으시다'로.
   원장님의 격려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원장님의 격려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칭찬합시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순종의 아이콘을 누구로 보고 계신가요? 각자 신앙의 모습을 다양하게 갖고 계시니 생각나는 성도도 다르겠지요?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여러 해 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떠오르는 사람도 비슷하리라 봅니다. 순종 하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는 너무나도 많아 다 그 이름을 나열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중 유독 눈에 띄는 성도가 있으니 바로 **박두식 권찰**님이십니다. 지금 주일학교 교사 사역과 주일 예배 때 찬양대로 맹활약 중이시지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귀한 우리 교회에 보배입니다. 교사로서도 해야 할 일이 주어졌을 때는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 **최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순종이 주일학교 아이들의 영혼을 더욱 살찌우고 있음에 감사하며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찬양대에서도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는지~~ 여러분들도 매주 보고 계시니 제 말에 찬성하지 않을 수 없지요? 주님께서 권찰님의 모습을 기뻐하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세상에는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때론 친절도 순종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위선적인 모습으로 행하는 자들의 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때 묻지 않은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에 오직 순종하고 맡겨진 사역에 **최고에 최선**을 다하는 **박두식 권찰**님을 힘 있게 박수치며 칭찬합니다.

감사 릴레이

박기숙 집사

2019년을 마무리하며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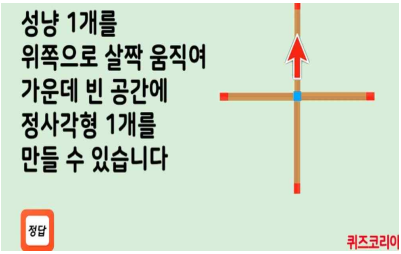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순관이가 중학교에 진학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학문을 통하여 전국과학전람회에서 생물부 1등 이라는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내 힘으론 안되지만 정말 말도 안되는 상황 가운데 주님은 환경을 열어 주셔서 장막의 축복을 허락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심방을 통하여 구원의 선포를 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장을 옮기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예은이가 양성 난소낭종이라는 진단을 받으며 급하게 주님께 저의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새벽단을 쌓을 수 있도록 환경을 열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나 부족한 입술로 다 표현하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여러 해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내게 족한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며 모든 상황 가운데 견디고 이길 힘 주신 은혜는 '사랑하는 내 딸아~~' 라고 불러주신 음성이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자 최하나 청년



룻

뜻 : 자손

[1] 셈의 아들(창10:22) **[2]** 모압 여자로 시어머니에게 효성한 한 여자(룻4:13, 마1:5). 룻기1장15-17절

룻은 "우정"이라는 뜻이다. 룻은 모압 여자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에 이주해 사는 기간 그의 아들 말론과 결혼한 나오미의 며느리다.(룻1:4) 이후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되고(룻1:5) 효성스런 며느리로(룻1:6-18), 보아스와 재혼하고 (룻 4:9-13), 오벳을 낳았다(룻 4:17). 그의 이름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다 (마 1:5-16).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나라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굳히므로 룻이 자기 장래를 위해 많은 고민과 갈등을 갖게 되었다. 이런 경우 룻의 결단은 정말 모험적인 것이었다. 룻은 무척 지혜롭고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어떤 대의와 가정을 구하는 것과 같은 윤리적인 큰 명분을 위해서는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까지 뛰어넘는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는「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고 고백했다. 이렇게 의지적인 태도를 가진 여자였다. 나라를 바꾸고 종교를 바꾸며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따른 많은 문제까지도 각오하는 여자였다. 아주 젊은 나이에 여기까지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은 예사일이 아니었다. 그 결과 계대의식을 따라 가장 가까운 친척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다.

▷교훈과 적용◁

첫째, 효부 룻의 한 가정을 구하려는 큰 자기희생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상급이다.

둘째, 룻의 모험적인 개종의 결단은 메시아의 혈통을 잇는 특수한 헌신자가 되었다.

키 테넌트 (Key Tenant)

요즘은 네비게이션을 통해서 원하는 상점을 먼저 찍고 그 상점을 찾아다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좋아하는 카페가 있으면 지역마다 그 까페가 있는 상점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와같이 키 테넌트는 상가에 고객들의 유입을 자연스럽게 이끄는 핵심적인 인기 점포를 뜻하는 말입니다.

슬로벌라이제이션 (Slowbalisation)

슬로벌라이제이션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세계화의 흐름이 점차 둔화되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Globalisation + Slow 의 합성어로! 최근에 보호무역주의와 국가간의 통상 마찰이 생겨나면서 슬로벌라이제이션 현상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데요~ 예를들면 교역량은 61% -> 58%로 10년 동안 감소추세에 있으며 중개무역량의 규모도 19% -> 17 %로 감소되었습니다. 은행대출 또한 전세계 GDP 60 % -> 36 %로 해외직접투자는 3.5 % -> 1.3 %로 국가적 글로벌 교역들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추세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고 이러한 위축되어가고 있는 현상에서 생겨난 용어 슬로벌라이제이션입니다.

신 파일러 (Thin Filer)

금융 거래가 적은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 주로 사회 초년생 등이 해당됩니다. - 중·저신용자에 특화된 신용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서민금융특화 신용조회회사(CB사)' 인가도 추진한다. 이는 금융 거래 실적 위주의 현행 평가 시스템으로는 신파일러 비중이 높은 중신용자나 연체 이력이 있는 저신용자의 신용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오소렉시아 너보사

건강한 식습관을 과도하게 집착하는 증상을 지칭 하는 용어. 이런 행위는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이달의 교회소식

1. 신년축복예배 / 1월 5일 오전예배
2. 직분임명식 / 1월 5일 오전예배
3. 공동회의 / 1월 5일 오후12:30
4. 제직헌신예배 / 1월 5일 오후7:30
5. 특별새벽기도회 / 1월 6일~10일 오전5시
6. 헌아식 / 1월 19일 오전예배
7. 구역헌신예배 / 1월 19일 오후예배
8. 구역단합대회 / 1월 21일 오후7시

◉ 공지사항

1. 1월 생활실천표어 / 네 발로 요단에 들어서라
2. 각 위원회 계획서 제출 / 1월 5일~12일 e메일

◉ 이달의 교우소식

1. 첫돌감사예배 / 백승우아동 - 1월 18일(토) 오후5시

상담전화 받습니다.
상담위원회(이영주사모 010-7747-5278, 김미진집사, 김소현권찰)

문서위원회

위원장: 김미진 집사
위 원: 박기숙 집사
이종희 집사
정현미 집사
전수현 집사
조은희 권찰
최하나 청년

DJFGC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